



호남대학 IT스퀘어(단장 정영기)는 최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했다. 참가학생들이 커피 내기기와 각테일, 음료 제조법 등을 배우고 있다. <호남대 제공>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는 최근 '201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섬머 캠프'를 개최했다. 캠프에 참가한 여고생들이 식품영양학과 강의의 들은 뒤, 케이크 만들기 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조선대서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20일까지 9개국 170명 참가  
태권도학과 품새·겨루기 지도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이 모여 기량을 뽐내고 국제적인 화합을 다지는 '2014 조선대학교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오는 20일까지 8일 동안 조선대 체육대학에서 열린다. 조선대(총장 서재홍)가 주최하고 체육대학 태권도학과(학과장 이계행)가 주관하는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인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인 광주와 조선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태권도 챔피언과 고단자들의 지도를 받아 기량향상은 물론 태권도 정신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국제적인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여섯 번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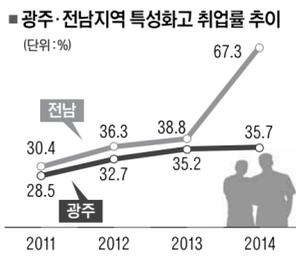
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중국, 스페인, 필리핀, 멕시코 등 세계 9개국에서 170여 명의 수련생과 지도자가 참가해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과 함께 수련한다. 태권도 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의 수준별 급수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겨루기반으로 나뉘어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각 반에는 태권도학과 재학생 20명 이상을 배치해 함께 수련한다. 송재훈 체육대학장은 "올해 여섯 번째 열리는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이라며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조선대를 방문한 세계 태권도인에게 남도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선대 학생들을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 해외 태권도협회 인프를 통해 해외 취업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 특성화고 취업률 1년새 2배 급등

작년 38.8% → 올 67.3%... 취업 역량 강화 효과  
광주도 13개 특성화 계열고 매년 꾸준한 상승세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59개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생 6350명 가운데 67.3%인 410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4월 1일 현재 취업률로 지난해 38.8%에 비해 무려 28.8%포인트 상승,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취업률은 2011년 30.4%, 2012년 36.3%, 지난해 38.8%, 올해 67.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순위도 지난해 8위에서 올해 최상위권(1·2위권)으로 경종 뛰었다. 취업의 질도 나아졌다. 취업자 중 공무

원 34명, 공공기관 54명,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 64명, 삼성그룹 49명 등 알짜 취업이 수백 명에 달했다. 취업률이 1년새 28.8%포인트 급등한 까닭은 뭘까. 전남도교육청은 무엇보다 취업역량 강화에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김정선 장학사는 "특성화고 교육 운영의 초점을 취업에 두고 몰적·양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취업 역량 강화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취업컨설팅을 추진한 것이 빛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컨설팅, 취업지원반 운영비 등에 예년보다 30~40%가량 많은 25억원



을 투입했다. 전남대·중소기업청 등과 손잡고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연 것도 취업률 상승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대학 진학 후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학업취업병행자와 영농인 등 4대보험 비(非)보험자를 취업률에 가산한 것도 취업률 급증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취업관계

자 연찬회에서 "산업기반이 열악한 전남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업률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면 취업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13개 특성화계열고(특성화고 10곳, 마이스터고 1곳, 일반계고 학과 운영 2곳)의 취업률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역량 강화사업 예산 중 30%가량이 차등 지원되고 다양한 취업정책을 펴는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1년 28.5%, 2012년 32.7%, 2013년 35.2%, 올해 35.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안규환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엘코 테크놀로지 등 대기업이 지난해 인력 채용을 늘린 점과 각 학교별 특화교육이 취업률 상승을 견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대 '선취업 후진학 평생교육' 선정

3년 연속... 재직자 특별 전형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취업 후진학 관련 평생교육지원사업' 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광주대를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란 특성화·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한 뒤, 근무경력 3년 이상이 되면 수능 대신 정월 외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대는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2015학년도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신입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야간 및 주말 교육 실시로 내실있는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또 현재 산업기술경영학부 중심의 '선취업 후진학' 운영을 2015학년도부터는 사회복지학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남부대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캠프'

광주지역 중·고생 40명 참가  
사회 적응·공동체 의식 함양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평생교육원이 광주시교육청의 '2014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캠프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캠프는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5일간)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0명과 비장애학생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 남부대·영광 가마미 해수욕장·담양 국제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 캠프를 통해 장애학생은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비장애 학생은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장애-비장애 학생간의 올바른 인간관계 기술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캠프는 ▲스포츠 레저학과 민범일 교수의 캠프지도 ▲초등 특수교육과 박순길 교수의 장애의 이해 교육 ▲호텔조리학과 박계영 교수의 쿠키 클래스 ▲음악학과 유신용 교수의 합창지도 ▲의료공학과 박주훈 교수의 알기 쉬운 천문교육 등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여대, 국제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항공서비스학과 박희수 등 3명  
'전남 중심 관광 활성화 방안'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항공서비스학과 박희수·민요희·이지은(4년) 학생이 최근 열린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주관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 후원한 2014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국제학술대회(2014 WHTF)에서 대학생

제안서 공모전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창조적 확대-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재편'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광주여대는 항공서비스학과 오지경 교수의 지도로 '관광 부국을 지향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전남 지역 관광을 중심으로'라는 제안서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토산철학원, 두걸음직업소개소, 광남기업, 등촌, 김용만국수집, 특임이아구짬, 광주화랑, 우먼로드, 고전방, 이가회관, TV스토리, 호선갤러리, 우리웃빛고를, 남원추어탕, 국보공예, 커피홀릭, 규방, 박당화랑, 석당화랑, 신신예술의집, 동곡갤러리.